

노출된 몸과 소멸하는 자아

- 김보영과 김초엽의 SF에 구현된 포스트휴먼 주체성

이소연*

1. 들어가며: 인류세 너머를 모색하기
2. 재난에 노출된 몸과 새로운 주체의 생성: 김초엽 『파견자들』
3. 포스트휴먼 조건으로서의 자아 소멸: 김보영 『종의 기원담』
4. 인류세적 전회와 공생 윤리: 김초엽 〈오래된 협약〉
5. 나오며

국문초록

최근 발표된 SF는 인류가 인류세적 위기에 응전하며 만들어갈 새로운 문명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초엽과 김보영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SF가 임박한 인류세적 재난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인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한다. 근대적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포스트휴먼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초엽의 『파견자들』은 외계에서 온 생물인 ‘범람체’에 의해 오염되는 세상을 그린다. 사람들은 범람체를 배척하고 피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오히려 범람체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리매김된 근대적 인간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의 형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포스트휴먼들은 다양한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생

* 서강대학교 강사

성의 흐름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보영은 장편 『종의 기원담』에서 로봇과 인간이 서로를 훼손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존, 공진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김초엽은 단편 〈오래된 협약〉에서 외계 생명체와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소멸 속에서 머물기’와 ‘노출’의 윤리와 정치학을 실천하라고 요청한다.

신유물론적 페미니스트 연구자 스테이시 얼라이모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유해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라고 권유한다. 생명체는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서 근대적 자아(ego)의 소멸, 훼손을 경험하지만, 이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존재론적 영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원자화된 자아에서 벗어나 생성의 흐름에 합쳐지는 경험을 수반하므로 쾌락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동적, 금욕적 의미의 ‘페이션시’에서 더 나아가 ‘노출’과 공생의 정치학을 인류세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인류세, 재난, 기후위기, 노출, 쾌락, 횡단-신체성, 용해, 공생, 공진화, 포스트휴먼, SF, 트러블, 인류세적 전회, 신유물론)

1. 들어가며: 인류세 너머를 모색하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 이룩해온 급속한 산업 발전의 타성에 젖어있는 탓에 이러한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요원한 상태다. 인류가 독점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구 행성의 온갖 자원들을 무절제하게 남용해온 결과는 참혹하다. 인

류 자신은 물론 현재 지구 위에 거주하고 있는 생물들, 물질들은 수많은 재난에 노출되었다. 날로 높아지는 기온, 그로 인해 발생한 재난들, 대기와 물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각종 독성물질들과 축적된 쓰레기들이 환경을 훼손시킴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위협 받는다. 지질학 분야에서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을 바꿀 정도로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의미로 명명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구분이 제출되었다. '인류세'라는 용어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을 바꿀 정도로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¹⁾ 인류세를 특징짓는 광범위한 정서는 인류가 임박한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단계의 역사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퇴조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전 지구적 재난의 조짐은 문학과 대중문화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연구자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난 서사 그리고 아포칼립스와 포스트-아포칼립스 서사가 유행했던 데에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한다.²⁾

한국문학에서는 지난 세기말부터 2000년대 초 많은 재난 서사들이 등장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독서 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외연을 넓혀온

1) 인류세라는 용어는 유진 스토머와 파울 크뤼천이 처음 제안한 용어로서 인간의 활동이 미친 영향이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마저 변화시킬 정도로 파괴적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현 단계의 인류가 처한 위기 국면을 표현하는 학술용어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과학, 예술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된다.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 정서진 역, 이상북스, 2018 참조.

2) 아미타브 고시는 "우리는 엄연히 거센 지구 온난화 추세가 '새 기준'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특정 문학 형식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없다면 (...) 창작적·문화적 실패의 한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시의 다음과 같은 말은 미래를 다루는 SF가 인류세적 현실을 가장 잘 재현하는 문학 형식이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인류세는 근대성의 시간적 질서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이제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가장 먼저 겪는 이들이다." 아미타브 고시, 『대 혼란의 시대』, 김홍욱 역, 예코리브르, 2021, 17, 87쪽.

SF는 장르의 특성 상 환경 재해, 외계 생명체나 로봇 등의 침입 등으로 인한 재난 등의 소재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SF 분야에서 새로운 세부 장르로 명명된 클라이파이(cli-fi, 기후변화소설)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파국의 상상력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사례 역시 주목 받고 있다.³⁾ 오늘날 SF가 제시하는 미래의 사회상은 인류세적 위기를 바탕으로 깔고 그에 응전하면서 형성해온 새로운 문명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 사회소설(social)이라 불릴 정도로 인류의 최근의 사회적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천착해 온 SF의 지향점을 짐작하게 만든다.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독서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동시대 한국 SF 가운데 김초엽과 김보영의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SF가 인류세 시대에 임박한 재난의 조짐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⁵⁾ 김초엽과 김보영은 SF 팬들은 물론 본격문학까지 포함하는 독자층의 지지를 받으며 한국 문학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김초엽은 2017

3) 이 부분에 대해 “클라이파이는 2010년도부터 용어적 정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SF적인 장르 정의를 위해서는 1960년대 이후 환경담론의 유입과 에코토피아 등의 맥락 등이 함께 견지되어야 한다.”라는 심사위원의 조언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클라이파이에 관한 후속 연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4) 이러한 최근 문학장에 나타난 SF의 특성에 대해 연남경은 “2020년대의 포스트 감수성”이라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포스트 감수성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 모든 감각하는 존재로 확장되고, 서로 연결된다. 포스트 감수성은 감각적 존재들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상을 타자화하고 자기와 구별 지으며 휴머니즘 주체성에 고착했던 근대적 주체와 결별한다.” 연남경, 「SF를 경유한 한국문학과 감수성의 변화 - 진정성의 주체에서 감각하는 존재로」, 『대중서사연구』 제 3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4, 39쪽.

5) 이 글에서 분석하는 텍스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초엽, 『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 출판, 2021;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김초엽, 『파견자들』, 퍼밀리온, 2023; 김보영, 『종의 기원담』, 아작, 2023. 앞으로 텍스트 본문을 인용할 때는 인용문과 함께 작품 제목과 쪽수만 병기한다.

년 등단한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작품이 축적되어 있다. 더욱이 김초엽에 대한 학계의 관심 역시 동시대 작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⁶⁾ 작품의 발표와 학계의

- 6) 김초엽에 대한 연구는 대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첫 번째는 김초엽의 SF를(포스트)아포칼립스 또는 재난서사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계열의 연구에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소연, 「재난서사의 새로운 동향과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출현 - 김초엽, 정세랑, 두나의 소설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제15권 2호, 32, 이화인문과학원, 2022; 이희영, 「공존을 기억하는 길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리터러시 연구』 제13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오혜진,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는 느슨한 공동체의 힘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조예은의 『스노볼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 『어문론집』 제95권, 중앙어문학회, 2023; 손혜숙, 「작은 가능성에 대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리터러시 연구』 제13권 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전소영,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마가렛 애트우드와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지구 종말이후의 이야기들」, 『동서비교문학저널』 제63권,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23; 표유진, 「김초엽 장편소설에 나타난 면역정치와 전염으로서의 공동체 - 『지구 끝의 온실』,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제100호, 국제어문학회, 2024; 우미영, 「종말 이후와 계속되는 삶 - 백민석·김기창·김초엽의 기후소설에 나타난 종말의 수사학 -」, 『동아시아문화연구』 제96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4. 2) 두 번째는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김초엽의 소설을 새로운 ‘몸’ 그리고 존재론적 전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인성,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 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권, 현대소설연구회, 2020; 신성환, 「확장된 마음과 인간-기술의 올바른 연합: 김초엽 소설 두 편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1권 49호, 동남어문학회, 2020;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 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제5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윤영옥, 「한국여성 SF에 나타난 신체기술과 지구공동체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양윤의·차미령,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비교한국학』 제30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최일섭,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비전과 소수자의 역습 - 김초엽 SF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6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손혜숙 「김초엽 소설의 ‘포스트휴먼’ 연구」, 『어문논총』 제42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23; 이양숙, 「인류세 시대의 유스토피아와 사이보그-‘되기’: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제15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23; 윤영옥, 「김초엽 SF에 나타난 물질로서의 몸과 생태적 상상력—〈늘지의 소년〉, 〈오염구역〉, 〈오래된 협약〉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83집,

반응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 학계의 상례였지만 최근 한국 SF에 관해서는 이러한 암묵적 규범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다. 평단의 작업과 학계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최근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초엽, 정세랑, 천선란, 정보라 등 젊은 작가들과 더불어, 장르 초기부터 기틀을 다져온 듀나, 김보영, 배명훈 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⁷⁾

한국 SF 장에서 김초엽과 김보영이 갖고 있는 대표성에 대해서는 이들을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의 양과 수준으로도 가늠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본 연구가 김초엽의 장편 『파견자들』과 단편 〈오래된 협약〉, 그리고 김보영의 장편 『종의 기원담』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두 작가의 작품은 가상의 시공간을 빌려 현재 인류가 맞이한 위기를 진단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이들의 관심사는 인류세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탐구하는데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소재로 한 서사는 많지만 이러한 재난서사들이 도달하는 결말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 크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등장인

국어문학회, 2023.

7) 김보영에 대한 연구는 김초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초기 단편부터 최근의 문제작인 『종의 기원담』까지 매 시기의 대표작들을 짚어주는 깊이 있는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오윤호, 「생명, 진화 그리고 초월의 존재론: 김보영 초기 단편집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제6권 1호, 이화인문과학원, 2023;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2020; 황지선, 「횡단하는 SF적 상상력과 생성의 문학 - 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제15권 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오윤호, 「에코테크네 생태의 비극과 진화론의 역설- 김보영의 『종의 기원담』을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제23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24.

물들의 지혜 혹은 용기로 인해 임박한 위기를 극복하는, 해피엔딩에 가까운 결말이다. 전지구적 재앙을 극복하고 문명을 재건하는 결말을 지닌 김초엽의 또 다른 장편 『지구 끝의 온실』이나 사악한 인공지능의 습격을 이겨내고 인류의 후손 격인 아이들을 지켜내는 줄거리를 담은 듀나의 〈두 번째 유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류가 닥쳐온 재난에 압도당해 절멸하는 과정을 담아낸 (포스트)아포칼립스 서사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회복과 재건,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며 종결되는 첫 번째 부류의 서사에 대극점에 서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알레고리를 담고 있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이나 인류 문명의 멸망으로 마무리되는 코맥 메카시의 장편 『더 로드(The Road)』,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 등이 이러한 플롯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김초엽은 재난을 겪은 지역을 여행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소재로 한 『프레모사』와 본 연구에서 다룬 『파견자들』에서 앞의 두 유형과는 다른 제 3의 플롯을 제시한다. 두 작품에서 김초엽은 닥쳐온 재난을 두려워하거나 그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일체를 이루거나 공존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형의 기회로 삼는 새로운 인간형들을 등장시킨다. 이들은 재난을 파국이나 종말로 여기는 것이 아닌 생존의 새로운 상태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전에 인간적(human)이라고 여겼던 특성들을 기꺼이 포기한다. 다시 말해 이 서사는 현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훼손 또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선택하면서도 이를 슬퍼하지는커녕 오히려 모종의 쾌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은 새드엔딩과 해피엔딩의 구분이 전도되었거나, 양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채로 마무리 된다. 비극적인 재난의 상태는, 오히려 그 재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로부터 쾌락을 얻음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윤리적 태도가 도출되는 것이다.⁸⁾

재난에 의한 훼손을 생존의 또 다른 양태로 받아들이는 인물형들은 SF 그리고 김초엽의 작품 세계 속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론, 세계관은 김초엽의 또 다른 단편 〈오래된 협약〉과 김보영의 장편 『종의 기원담』 역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김초엽과 김보영의 다른 작품들 그리고 동시대적 공통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SF 작가들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존재론적 특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세 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김초엽과 김보영을 비롯해서 최근 SF 작가들과 일부 신유물론 사상가들이 재난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우선 인류세 위기를 냉철하게 바라볼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암울한 현실이 크게 작용한다.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김초엽과 김보영은 재난 사태를 바꿀 수 없다면 인류 자신을 바꾸자는 전도된 해법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지난 세기 근대 문명을 쌓아올리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근대인’으로 자리매김해온 인류가 기존의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성이 이러한 해법을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를 바꾸는 기획은 일찍이 트랜스휴머니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철학적, 사회적 맥락에서 분화된 포스트휴머니즘까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로지 브라이도티, 도나 해러웨이, 그리고 스테이시 얼라이모 등 신유물론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상가들의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류가 변화하여 도달한 상태에는 훼손, 분해, 감퇴 뿐 아니라 죽음 또는 죽음으로 여겨졌던 상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폭넓고 심오

8) 이러한 전도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노자의 『도덕경』 13장에 나오는 “貴大患若身” 즉 “재난을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라는 구절을 참조할 수 있다.

한, 급진적인 변화까지 포괄하고 있다. 해리웨이는 인간이 퇴비(compost)가 되어 서로를 위한 양분이 되는 상태를 지향하며, 브라이도티는 인간성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의 경계조차 해체하는 단계로 나아가며⁹⁾, 스테이시 얼라이모는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스스로를 노출하고 훼손시키는 행위의 윤리적, 정치적 가치에 대해 역설한다. 이들의 연구는 기후 변화와 화학물 오염 등이 낳은 임박한 재난의 징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시대인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사유의 틀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김초엽과 김보영의 소설에 등장하는 포스트휴먼의 형상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성을 넘어서는 데 머물지 않고 죽음, 파국, 재난이라는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재고하게 하는 데 있으며 희망과 절망의 근거와 지향점을 전도시키는 데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특이점에서 탄생하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제시한다는 특성도 공유하고 있다.

2. 재난에 노출된 몸과 새로운 주체의 생성: 김초엽 『파견자들』

김초엽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 『방금 떠난 세계』(2021) 등의 단편집, 그리고 『지구 끝의 온실』(2021), 『프레모사』(2021), 『행성어 서점』(2021), 『파견자들』(2023) 등의 장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단숨에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김초엽은 소설을 통해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에 인류가 맞이할 가능 세계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낸다.

9) “나는 이러한 긍정적 접근을 죽음에 관한 논의에까지 확장하자고 제안한다.” 브라이도티, 「생명 자체의 정치와 죽어 감의 새로운 방식들」, 『신유물론 패러다임』, 다이애나 쿨·사만다 프로스트 엮음, 박준영·김종갑 역, 그린비, 2023, 307쪽.

이 가운데서도 『지구 끝의 온실』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돔(dome)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숨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돔은 재난은 물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타자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이러한 돔 시티를 지배하는 것은 ‘노출’과 정반대 되는, 보호와 은폐 그리고 배제의 원리다. 단순히 눈앞의 재난만 막고 나(혹은 우리)만 살면 된다는 또 하나의 간지로 인해 인간은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생지옥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눈앞에 직면한 다양한 ‘트러블’들과 맞서 싸우는 삶을 피하지 못한다.¹⁰⁾ 하지만 이러한 배제와 은폐가 아닌 노출과 공존을 선택한 사람들은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켜내고 마침내는 재난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 이 소설은 재난의 시대에는 ‘나’(또는 폐쇄적인 ‘우리’)라는 개체적 존재에 한정되어 있던 생명체의 단위를 해체,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동시에 인류의 생존은 얼마만큼 자신을 해체하여 타자와 접촉할 수 있는가하는 ‘노출’의 행위 능력을 강조한다.

『트레모사』와 『파견자들』에서는 재난 이후 문명에서 인류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한결 심각하게 전개된다.¹¹⁾ 『파견자

10) 여기서 ‘트러블’이란 용어는 도나 해러웨이의 저서인 『트러블과 함께 하기』의 제목에서 착안한 것이다.

11) 작가는 이전에 펴낸 단편집인 『행성어 서점』에서 장편소설인 『파견자들』의 단초가 되는 짧은 소설들을 여럿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늪지의 소년>과 <오염구역> 같은 초단편이며 윤영옥에 의해 (김초엽의 또다른 소설집에 있는 단편인) <오래된 협약>과 묶여서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고찰된 바 있다.(윤영옥, <김초엽 SF에 나타난 물질로서의 몸과 생태적 상상력—<늪지의 소년>, <오염구역>, <오래된 협약>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 초단편들에 담긴 아이디어들은 이후 발표된 장편 『파견자들』에서 본격적으로 개화되어 새로운 문명의 대안이 될 사상으로서 체계를 갖춘다. 심지어 <늪지의 소년>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인 ‘오웬’이라는 이름은 『파견자들』에도 그대로 등장하며 늪과 ‘늪인’이라는 주요한 설정 역시 되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성어 서점』 이후에 출간된 장편인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물론 본 연구에 전개된 작품 분석 역시 신유물론 사상을 폭넓게 적용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들』은 외계에서 온 ‘범람체’에 맞서서 인간들의 문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려낸다. 범람체가 지상을 오염시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지하에 내려가 도시를 이룬다.

『파견자들』에는 자아를 위협하는 이질적인 존재, 심지어는 기생체나 침입자로 여겨졌던 다양한 존재와 공생, 공존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일단 주인공 태린부터가 단일한 의식의 주체라는 기존의 인간관으로부터 이탈한 혼종적인 존재다. 태린은 어렸을 때부터 ‘쏟’이라는 존재와 함께 한 몸을 공유해왔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쏟과의 동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오히려 태린은 쏟의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기는커녕 쏟이 갖고 있는 감각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위험들을 타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복수의 존재들이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존재양식은 태린이 지상에서 만난 ‘늑인들’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태린은 파견자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태린은 수수께끼의 늑과 그곳에서 사는 늑인을 만난다. 놀랍게도 범람체의 일부가 된 늑인들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범람체의 존재를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범람체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는 늑인만이 아니다. 나중에 태린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목소리를 들려주며 공존하던 쏟 역시 몸안에 심어진 범람체임을 알게 된다. “(...) 범람체가 뇌 안에 있지만 자아가 해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의 생존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파견자들』, 301쪽)태린은 늑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범람체가는 개체화된 상태를 파괴해 존재의 연결망에 연결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넘어서서, 행위능력(agency)으로서의 ‘노출’과 그에 따른 쾌락의 의미 그리고 자아(ego) 의식의 본질에 대한 사유까지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간다.

작가는 범람체와 한몸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체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 받고 있는 태린과 쏘를 통해 새로운 ‘포스트휴먼 주체성’의 형상을 그린다. 브라이도티는 이러한 포스트휴먼 주체를 가리켜 “다수의 소속을 허용하는 생태철학(eco-philosophy) 안에서 다양체로 구성된 관계적 주체”로 정의한다. 이러한 주체는 “인간과 인간-아닌 것의 새로운 연결들, 새로운 동물존재론들과 더불어, 복잡한 미디어-테크놀로지 인터페이스들”을 지니며,¹²⁾ 단일한 개체가 아닌 “탈-개인적이며 전-개체적이고 관계적이어서, 다양한 타자들과의 끊임없는 협상 속에, 완전히 전복시키지 않는 이상 이해하면서 조정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건들 속에 잠겨 있”는 주체성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포스트휴먼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죽음’이라고 여겨왔던 상태 역시 해체된다. 개체적 존재가 와해되는 것을 자아상실, 나아가 죽음으로 여겨왔지만 이를 단지 존재 양식이 변화하는 사건으로 바라보면 재난에 대한 시각도 크게 바뀐다.¹⁴⁾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은 단지 신체나 정신의 일부만 바꾸거나 증첩시키는 과정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전인적

12)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지식』, 김재희·송은주 역, 아카넷, 2022, 30쪽.

13) 앞의 책, 73쪽.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머니즘 사상을 정리한 다른 저서에서 포스트휴먼의 관계 지향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포스트휴먼 주체성은 체현되고 환경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런 형태의 책임성을 표현하며, 집단성, 합리성, 공동체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환경과 주변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브라이도티 사상의 특징은 “다수의 타자들과의 관계의 흐름 안에 주체를 위치시키는 긍정의 유대”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20, 68쪽.

14) 소설에서도 이러한 죽음관은 태린의 말과 생각을 통해 직접 표현된다. “범람체가 인간의 자아를 파괴할 때 그것은 죽음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인류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확실하냐고, 지금 범람체들이 묻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짐작하는 대신 물어본 적이 있었나? 범람화된 인간들에게 직접 묻는다면 그들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동의할까? 광증 발현자들은? 늙은들은?”(『파견자들』, 242쪽.)

이고 전존재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¹⁵⁾ 브라이도티 뿐 아니라 도나 해러웨이, 스테이시 얼라이모 등 다른 포스트휴머니즘 철학자들의 주장에서도 유사한 사상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해러웨이는 개체로 존재하는 근대적 자아가 자신이 깃들어 사는 환경, 그리고 다양한 타자들과 함께 “뜨거운 퇴비 더미 속에서, 예기치 않게 협력하고 결합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상상한다.¹⁶⁾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훼손과 상실을 무릅쓰고 퇴비 즉 흙으로 돌아가는 감산의 과정을 경유해야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 사유한 또 한 사람의 사상가인 스테이시 얼라이모는 인간이 물질 세계,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개념을 구상하고 자연과 인간의 몸들을 가로지르는 이러한 운동이 모여 ‘몸된 자연(bodily nature)’을 이룬다고 주장한다.¹⁷⁾ 이를 위해서는 “포스트휴먼적, 반인본주의적 감각을 지닌 누구나 넓은 물질 세계로 자아를 활짝 열고, 온갖 종류의 물질과 물질적 행위작용이 자신을 관통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횡단-신체성이 작동하려면 몸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인 ‘노출’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인류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몸은 유해한 물리적 접촉이나 화학물질

15) 브라이도티가 <생명 자체의 정치와 죽어 감의 새로운 방식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그는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를 확장시켜 “생명과 죽음 사이의 경계들을 전환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같은 글의 다른 곳에서 그는 죽음이란 사건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궁극적인 감산은 결국 어떤 생성 과정에서의 다른 상태일 뿐이다.” 『신유물론 패러다임』, 291, 307쪽.

16)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13, 61쪽. 비록 그는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했지만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유물론적 사유를 펼치는 로지 브라이도티 등과 큰 맥락에서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를 넘어서는, 내재적이면서 실천적인 공생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17) 스테이시 얼라이모,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그린비, 2018, 18-19쪽.

18) 얼라이모, 『노출: 포스트휴먼 시대 환경 정치학과 쾌락』, 김명주 외 역, 충남대학교출

에 노출되기도 하고 낮은 문화나 타자들에게 노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출은 일차적인 몸의 훼손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의 접촉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존재의 생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엘라이모는 인류가 이러한 대상에 노출‘당하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감수의 상태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위함으로써 협소한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쾌락, 욕망, 관능, 에로티시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¹⁹⁾ 바로 이러한 죽음을 불사하는

판문화원, 2023, 20쪽.

- 19)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함께 머무는 삶을 추구하라는 주장은 소란 리더나 패트리스 헤인즈, 김홍중 등이 주장하는 ‘감수(patience)’의 미덕과 유사해 보인다. 소란 리더에 따르면 감수능력이란 외부로부터 가해진 작용을 견디고 견어내는 힘, 참고, 침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서히 변화해갈 수 있는 역량이다. 감수에 대한 강조는 인류세 위기에 닥쳐올 압도적인 재난으로 인해 과거 근대적 세계관에서 중시했던 행위능력(agency)이나 활동성(activity)을 발휘할 가능성이 위축된다는 암울한 전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인류세를 살아가는 인물들은 행위자(agent)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가하는 행위의 작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의 감수자(patient)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수의 미덕은 닥쳐올 재난을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극복하는, 수난(passion)과 수동성(passivity)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동적, 금욕적 의미의 페이션시 즉 감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출’의 정치학을 인류세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노출’은 신유물론적 페미니스트 연구자인 스테이시 엘라이모가 제시한 용어다. 엘라이모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유해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라고 권유한다. 노출은 닥쳐오는 재난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삶과 일을 활짝 열고, 비인간 생물체들과 서로 작용하고, 행위하고,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공공의 공간도 활짝 열”어 쫓아가는 능동적 행위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자아(ego)의 소멸, 훼손을 경험하지만, 이를 통해 원자화된 자아에서 벗어나 생성의 흐름에 합쳐지는 유토피아적 순간이 도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출의 주체는 적극적으로 자아의 소멸을 ‘열망’하며 새로운 주체를 생성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감수의 윤리보다 훨씬 강력한 행위성을 발휘한다는 차이가 있다. Soran Reader, “Agency, Patience, and Personhood”, in T. O’Connor and C. Sandis eds.,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Action*, 200-208, Blackwell Publishing, 2010; Soran Reader, “The Other Side of Agency”, *Philosophy*, Vol.82, No.4, pp.579-604; Patrice Haynes, “Creative Becoming and the Patience of Matter”, *Journal of Theoretical Humanities*, Vol.19, No.1, 2014. pp.129-150; 김홍중,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페이션시(patience)」,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3호, 한국과학기술

‘노출’의 전략이야말로 『파견자들』에서 태린이 범람체와 공존하기 위해 택한 해법이였다. 태린은 개체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존재의 연결망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 규정하는 지하 도시의 관념에 반기를 든다. 그리고 범람체에 의해서 존재양식이 바뀌는 사건을 ‘비상상태’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태린의 활약으로 범람체와 발현자들, 늑인을 대하는 지하도시의 태도 역시 변화한다. 지하의 인간들과 지상의 존재들이 공존하는 연결 지대가 생기고 사람들은 서서히 범람체와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태린은 자신과 함께한 몸을 공유하는 쓸과 함께 범람체와 인류의 의사소통 그리고 공존에 필요한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상을 차지하고 있던 범람체들과 지하에서 살던 인간들이 교류하는 자유구역을 만든다. “경계 지역에서 범람체들은 인간의 자아를 침범하지 않는 법을 습득하고, 이곳의 인간들은 모두 범람화된 채로 살아간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이들은 스스로를 '전이(轉移)자'로 칭했다.”(『파견자들』, 416쪽)

범람체의 연결망에 전이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은 행성 전체를 아주 느리지만 연결된 형태로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 범람체는 이 행성 전체에 퍼져 있었다. 인간이 개체 중심적인 존재이기만 했을 때, 그들은 개인 혹은 작은 집단만을 생각했을 뿐, 행성 전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람체와 결합된 인간은 연결망 속에서 사고하고, 그렇기에 자신이 행성 전체의 일부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상의 일부를 인간의 터전으로 삼더라도, 지금 늑과 연결된 이들에게는 무작정 뺏어 나가고 싶은 욕망이 없었다. 연결망을 통해 생각한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더라도 전체로 이어진 생각 체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스스로의 생각을 재검토하는 일이었다. 부분적인 층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와 무관하게 존

재하는 부분은 없었다. 범람체와 결합된 인간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였다.
(『파견자들』, 418쪽, 강조는 인용자)

범람체에 대한 ‘노출’은 자아의 파괴와 훼손마저도 감수하는 전략이지만 어차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과 그에 따른 자아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의식과 자유의지를 지닌 개체, 자아(ego) 중심적인 존재가 아닌 비인간, 비개체적인 무기물로 변형된다. 브라이도티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주체(조예)의 살아-있음(being-aliveness)은 죽음과 절멸에 있어서 그 사멸 가능성, 경향성 그리고 취약성으로 규정된다”라고 설명한다.²⁰⁾ 생명 안에 이미 죽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항상 이미(always already)’ 포스트휴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 몸과 삶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타자, 개체의 경계를 무너뜨려 훼손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다. 얼라이모는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휴먼이란 인간에 뒤이어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의 기원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항상 이미’ 뒤섞여 있는 바로 그 존재라는 뜻”²¹⁾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은 인간 ‘이후’에 찾아오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순수하고 단일한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복수의 다양한 존재, 수많은 타인과 비인간, ‘몸된 자연’과 환경에 체화된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인식론적 개념에 가깝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들의 뇌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들이 원래 고수하던 자아의 개념은 무너지겠지. 하지만 그건 인간들 모두가 결국은 겪는 일이잖아?”(『파견자들』, 243쪽) 김초엽의 SF는 인간관과 생사

20) 브라이도티, 「생명 자체의 정치와 죽어 감의 새로운 방식들」, 『신유물론 패러다임』, 다이애나 쿨·사만다 프로스트 엮음, 박준영·김종갑 역, 그린비, 2023, 298쪽.

21) 얼라이모, 『노출』, 180쪽.

관마저 뒤흔드는 급진적인 전회만이 다음 세대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전망을 통해 인류세라는 위태로운 시기를 통과하는 인류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3. 포스트휴먼 조건으로서의 자아 소멸: 김보영 『종의 기원담』

김보영은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장에서 본격적으로 SF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초석 같은 역할을 한 작가다. 한국 SF 문학계 역시 그에게 SF 어워드 등의 상으로 화답했지만 무엇보다 한국 SF 최초로 단편이 미국의 대표적인 SF 웹진 클락스월드(*Clarkesworld*)에 소개된 것, 2021년에는 장편 『종의 기원담』이 한국 작가 최초로 전미도서상 외서부문 후보에 오른 일은 분명 기억할 만한 문학적 사건이다.

『종의 기원담』은 <종의 기원담>, <종의 기원담: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이다. 2005년에 첫 단편이 발표된 이후, 2023년에 세 번째 단편을 썼으니 완결을 보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셈이다. 로봇과 인간의 문명, 두 개의 문명을 가로지르는 이 소설에서 서사를 이끄는 주요 인물들로 등장하는 존재는 로봇이다. 이 소설은 시종일관 로봇의 입장에서 로봇 문명 내부에서 본 사건만을 말하므로,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 문명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소설은 인류가 지배하는 문명이 파국에 이른 뒤, 긴 시간이 흘러서 인간과 유기 생명체들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의 지구를 상상한다. 유기물들이 살 수 없는 극한(劇寒)의 기온과 건조한 환경에서, 로

봇들만 남아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하며 살고 있다. 소설 속에 그려진 로봇들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사회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소설은 세편의 연작 모두 케이라는 이름의 로봇의 시선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진행된다.

유기생물학이라는 낯선 학문에 접하게 된 케이는 유기체가 생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이라는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그러나 그는 완성된 ‘인간’을 마주하고 경악한다. 인간들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내뿜으며 로봇들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인간에 접한 로봇들은 광신자처럼 인간에 대한 맹목적 사랑과 복종의 쾌감에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하고 있다. (소설에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먼 과거에 인간들이 로봇을 제조하면서 인간에게 복종하고 그를 해칠 수 없다는 로봇 3원칙을 입력해둔 덕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케이는 인간의 존재가 로봇의 주체성과 행위능력을 훼손시킴으로써 로봇 문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따라서 다른 로봇과는 달리 인간에게 복종하고 신성시하는 본능에 저항한다. 소설 후반부에서 케이는 살아남은 인간을 대표하는 시아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듯 말한다. “너희가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이상 무엇도 다르지 않아. 너희의 존재가 우리의 자아를 위협하는 이상 우리가 공존할 길은 없어.”(275쪽, 강조는 인용자)

인간과 유기생명체는 로봇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이유 외에도 더 직접적인 이유로 로봇 세계에 해를 입힌다. 이는 다름 아닌 유기생명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환경 즉 산소와 물 때문이다. 저온 건조한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에게 유기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물론이고 유기생명체 자체는 로봇을 부식시키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독이며 공해다.

“신은 우리를 위해 저 생물을 지상에서 없애버리셨어. 왜 그들을 되살려야 하지? 물을 먹고 산소를 뿜어내는 생물이라니. 이건 악몽일세. 이곳은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네. 독성물질로 가득 차 있어.”

“.....”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생명의 영역에 광폭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일이 과연 잘하는 짓일까?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작해버린 것이 아닐까?”(『종의 기원담』, 98-99쪽)

지구는 침식당하고 있다..... 케이는 생각했다. 인간교도들이 인간에게 제를 올린답시고 이런 유기사원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유기오염의 자연 증식이 점점 지구 곳곳에서 보고된다. 어디에서는 점균이 이상 발생하고 어디에서는 지의류가 대량 증식한다.

그 긴 세월 로봇의 점령과 침공을 묵묵히 견뎌내던 지구는 마침내 역습을 시작했고 로봇의 힘으로는 그 기세에 저항할 수 없을 것 같다.(『종의 기원담』, 197-198쪽)

로봇 사회는 인간을 숭배하고 그들을 되살리려는 로봇들을 체제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멸한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현실 세계에서 인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학물의 유해성이나 AI, 유전자 편집 기술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자비한 소탕으로 인해 인간이 거의 소멸되었다고 생각할 즈음 살아남은 인간이 찾아와 환경청장이 된 케이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그러나 인간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공존하자고 제안하는 요청을 케이는 단칼에 거절한다. 그러나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자신의 회로에 입력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 탓에 케이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그 과정에서 회로에 과부하게 일어나 인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감정이 입력된 장치가 타버리고 만다.

깨어났을 때 케이의 안에서 무엇인가가 변했다. **정체성이나 자아로 부를 법한 어떤 부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류와 결합이 누적되다가 결국 회로가 타버리고 말았다. 감정의 일부가 영원히 소실되었다.

케이는 ‘인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회로의 어떤 부분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종의 기원담』, 281쪽, 강조는 인용자)

그러자 케이는 비로소 인간에 대한 신성이 걸힌 자신의 눈에 인간이 평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들을 ‘이해’하게 된다. “비로소 케이는 인간의 존재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있는 그대로 애뜻해할 수 있었다. 경애가 사라지자 증오도 똑같이 자취를 감추었다.”(286쪽) 여기서 “정체성이나 자아로 부를 법한 어떤 부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대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로봇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자아(ego)의 소멸’임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는 신의 신탁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저항하고 마침내 자신의 눈을 찌르기까지 한 오이디푸스에 비견될만한 인물이다. 오이디푸스는 침해될 수 없는 자아의 수립과 확장을 목표로 하는 근대적 인간상을 선취하고 있다.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아의 무한한 확장을 추구하는 영웅적 주인공이야말로 서구의 근대가 이상으로 여겼던 안드로포스(Anthropos)로서의 인간(Human) 형상에 가깝다. 케이가 로봇으로서의 자결권을 위해 인간과 공존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은 근대적 휴머니즘이 자연, 동물, 이방인과 같은 타자를 배제하는 기반 위에 성립되었고 자연을 이용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오늘날 인류세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자신들의 자아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타자와의

공존은 불가하며 해결책은 오로지 타자를 지상에서 박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근대적 영웅 케이의 운명은 결국 타자에 의해 자아가 훼손당하는 상태를 감수하는 존재인 '포스트휴먼'이 되어 인간과의 공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소설은 '투쟁이나 다름없는 공생'이라고 표현한다.

'식물' 중에는 도저히 홀로 생존할 수 없을 만치 기형적으로 진화한 종이 유달리 많다.(...) 이러한 기이한 형질 변화의 이유는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한 유기생물학자가 이에 대해 기묘한 가설을 발표했다.

그 식물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적대자이자 포식자에게 제 몸을 영양으로 제공하고, 대신 자신과 자손을 돌보고 널리 번식시켜달라는 맹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약을 한 뒤 몸 대부분을 먹이로 치환하는 극단적인 신체 개조를 감행했다. 그 종자들이 결국 대량 멸종의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번성하여 지금껏 전한다는 것이다. 서로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이들이 공진화한 방식이었다. 투쟁이나 다름없는 공생이었다.(『종의 기원담』, 282쪽,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자신들을 소탕하고자 몰려온 환경청 직원들 앞에서 인간들은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다름 아닌 '앞으로는 인간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비가역적인 명령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포기하고 로봇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케이는 마침내 인간에게 설복된다. "아니, 시아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을 열망했다. 냉철하고도 확고한 의지로. 결과적으로 시아와 그 가족은 당면한 죽음 앞에서 의연히 살아남았다. 투쟁이나 다름없는 공생

을 택했다.”(302쪽) 인간 역시 자신이 로봇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능력을 거세하고 나서야 평화로운 공존을 약속받게 된 것이다.

이 소설과 『파견자들』은 로봇과 지하도시의 인간들을, 범람체와 인간 및 유기생물들을 각각 대응시키면 정확히 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 이 두 소설은 양측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소설 모두 서로 대립하는 두 존재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인물은 각성을 통해 양쪽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타협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이전에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존재들 사이의 적대 관계가 허물어지고 공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생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종의 기원담』에서 작가는 공생은 결코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훼손시키며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투쟁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 소설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로봇이 인간들과 접촉하고 난 뒤 자신의 존재가(얼라이모의 표현을 빌면 ‘산성 용액 속에서 녹아내리는 해조류 껍질처럼’) 용해되고 있음을 자각하는 장면이다. “침입자들이 떠난 뒤, 남겨진 케이는 배터리가 닳은 기계처럼 몸을 가누지 못했다. 오롯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던 자아에서 철판이 투둑투둑 벗겨져 나가며, 흰히 드러난 내부기관으로 녹물이 침입하는 환상에 사로잡혔다.”(238쪽) 그러나 소설 속의 로봇들을 비롯해 현실 속의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유해한 존재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재난에 상처 입고 자아를 포기하는 길에서 우리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감수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새로운 존재태로 생성되어 가는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얼라이모는 『노출』의 부제를 “포스트휴먼 시대 환경 정치학과 쾌락(pleasure)”이라고 붙임으로써 노출에 따르는 불

안이나 소진의 고통보다 에코델릭(ecodelic)적인 쾌락을 강조한다. 얼라 이모와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철학의 맥락을 공유하는 로지 브라이도티 역시 “우리는 익숙한 체제의 영속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성의 재발명에서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진실로 열망하는 것은 이 생성적인 되기의 흐름 안으로 융합되어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의 선조전은 원자화된 개별 자아의 교란과 사라짐과 소실이다.”²²⁾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언급들은 통해 포스트휴먼 주체로 재탄생하는 것이 결코 희생이나 인내의 미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인간 내부에 자의식적인 단일 개체를 넘어선 포스트휴먼을 향한 ‘열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근대적 인간이라고 여길 때조차 ‘항상 이미(already always)’ 포스트휴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스트휴먼은 흔히 생각하듯 선조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 인간 다음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항상 이미 뒤섞여 있는 존재임”을 각성하고 유쾌하게 인정하는 인식론적인 개념에 가깝다. 『종의 기원담』 속의 로봇들은 자신의 금속 몸체를 부식시키는 산소, 물, 그리고 유기생명체의 존재에 기꺼이 노출되고 항상 이미 존재론적으로 얽혀 있었던²³⁾ 인간의 존재를 세계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회는 인간과 자연, 독과 약, 가해와 피해,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나누는 경계선을 해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22)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122, 176쪽.

23) 인간은 로봇을 만들었고 소설 속에서 로봇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존재론적 얽힘 상태에 있다.

4. 포스트휴먼을 위한 공생 윤리: 김초엽 <오래된 협약>

인류는 지난 COVID-19 사태에서 몇 차례의 인식론적 전회를 경험했다. 특히 이 사건이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참혹한 재난이지만 지구와 다른 생명체의 입장에서 보면 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키는 인간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자정작용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²⁴⁾ 한편 스테이시 얼라이모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눈앞에 둔 시기에 ‘소멸하는 데 거주하는 것’ 또는 산성의 바다 속에서 녹아내리는 껍질을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세 위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익혀야 할 미덕이자 윤리라고 주장한다. 넓은 물질세계를 향해 자아를 활짝 열고 온갖 물질들이 자신을 관통하고 스며드는 것을 감수하도록 하는 노출의 윤리학이자 정치학²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나 해러웨이는 뜨거운 퇴비 더미 속에서 자신을 부식시켜가면서 서로 결합하고 협력시켜 가야 한다는 탈인간 중심주의적 사유를 요청하고 있다.²⁶⁾

김초엽의 <오래된 협약>은 이러한 공생의 원리를 간결하지만 정밀하게 구현한 작품이다. 지구인들은 외계 행성 벨라타에 인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탐사선을 보낸다. 탐사대의 일원인 이정은 벨라타에 사는 인간들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수명을 사는 것을 발견한다. 벨라타인의 대다수는 스물다섯 해를 넘겨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생애 마지막 다섯 해에 몰입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진다. 이 때 “기억상실, 지성과 언어능

24) 브뤼노 라투르는 지난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lockdown) 에피소드를 가리켜 “바이러스가 강요한 봉쇄는 완곡하게 ‘생태학적 위기’라 불리는 바가 강요하는 격리의 일반화에 차츰 친숙해지기 위한 예행 연습이 될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브뤼노 라투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김예령 역, 이음, 2021, 62쪽.

25) 얼라이모, 『노출』, 20쪽.

26)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 13쪽.

력의 급격한 감쇠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벨라타 인은 “신에게 우리의 정신이 귀속되는 과정”으로 여긴다.(204쪽) 이정은 벨라타 인이 이런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대기 중에 있는 루티닐이라는 신경독성 물질 때문임을 알아차린다. 또한 행성 곳곳에 흔하게 존재하는 ‘오브’라는 식물을 섭취하면 루티닐을 분해해 더 건강하게 오랜 수명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러나 벨라타 인들은 치유 효과가 있는 식물인 오브를 신성하게 여기며 금기시한다. 이정이 벨라타 행성을 떠난 후 알고 보니 죽은 식물인 줄 알았던 오브는 원래 벨라타의 원주민이었다. 오브들은 자신들이 내뿜는 루티닐 때문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긴 잠에 들어갔던 것이. 그 대신 인간은 잠들어 있는 오브들을 보호하기로 협약을 맺는다. 그 행성의 인간들에게는 수명을 줄이는 유독한 환경이 오히려 종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양보와 협약의 결과였던 것이다. 공생이란 서로 침투하고 훼손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²⁷⁾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가진 개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전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221쪽) 이와 유사하게 『파견자들』에서도 태린은 범람체에 감염됨으로써 “복잡한 연결망을 이루고 그것은 마치 하나의 집단 신경망처럼 작동”(229쪽)하는 상태를 경험한다. 개체적 상태가 소

27) 연남경은 오브가 이룬 공생적 집합체를 설명하기 위해 도나 해러웨이의 ‘홀로바이온트(holobiont)’ 개념을 가져온다. “서로 깊숙이 침투하고, 개체인 동시에 집단이며, 행성의 생태계 그 자체인 오브들이 홀로바이온트와 흡사해보이는 반면, ‘경계가 있는 개체주의 bounded individualism’의 산물인 호모 사피엔스이자 인류는 홀로바이온트로서의 벨라타 행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거는 오브들의 목소리를 들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연남경, 「변적 페미니즘으로 본 SF 현상과 연결됨의 윤리—얼마나 닮았는가, 리셋, 오래된 협약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94쪽.

떨되고 집단적으로 연결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들뢰즈의 사유를 빌면 ‘인칭적 죽음’ 이후 ‘비인칭적 주체’가 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들뢰즈는 인칭적 죽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인칭적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 글 속에서 비인칭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l'impersonnel)를 근대적인 자아, 인간 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주체의 단위로 제시한 바 있다. 자기반성적 사유 안에 간혀 있는 인칭적 주체와 달리 비인칭적 죽음은 자유로운 차이의 상태를 지칭한다. “이 차이들이 어떤 형태 안에서 자유롭게 전개되고 있다면, 그 형태는 그 어떠한 동일성의 정합성과 마찬가지로 자아의 고유한 일관성을 배제한다.”²⁸⁾

마찬가지로 개체의 소멸로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자신과 타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는 이러한 탈개체적인 존재로 탈바꿈하게 될 잠재력을 ‘항상 이미’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지구 역시 벨라타와 같은 척박한 환경으로 변하고 인류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시기가 오면 개체라는 경계를 해체하고 오브와 같은 타자, 낯선 존재들을 향해 존재를 열어젖히고 공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포스트휴먼-되기는 이러한 자유로운 ‘되기’의 상태에 기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행위능력에서 비롯된다.

2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8, 256쪽. 들뢰즈에 따르면 인칭적 죽음은 단지 개체적 존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칭적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개체 상태를 벗어난 또 다른 상태의 존재태로서 다시 생성된다고 한다. 비인칭적 죽음은 우리를 무한히 넘어서는 변용의 작업이며 한 개체를 이전과는 다른 개체로 변화 생성시키는 계기이자 문턱으로서의 ‘사건’이 된다(김효영, 「들뢰즈의 비인칭적 죽음에 대하여: 들뢰즈 자살에 대한 콜롬벳과 하루미의 논의를 바탕으로」, 『철학연구』 제 130호, 철학 연구회, 2020, 338쪽). 이러한 내재적 상태에서의 재생성 또는 재탄생은 근대적 인간관에서 규정한 개체적이고 자아 중심적 ‘인간’으로부터 전체와 연결된 탈중심적인 포스트휴먼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들뢰즈의 사상은 사실상 포스트휴먼에 대한 상상력을 선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생의 원리를 잘 구현한 단편 〈오래된 협약〉에서, 행성의 원주민 오브는 뒤늦게 찾아온 손님인 인간을 위해 자신의 수명을 나눠주고 긴 잠에 들어간다. 소설에서는 ‘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정이 “오브는 그냥 죽은 식물이에요. 생물학적 활성이 없어요. 노아. 금기도 신의 저주도 아니라고요.”(207쪽)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인간들이 보기에는 무기물에 버금가는 죽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잠에 들어간 상태의 오브는 보는 이에 따라서는 사물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인간, 유기 생물 뿐 아니라 비인간, 사물(로 여겨지는 대상)에 이르기까지 공감과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열어 놓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5. 나오며: 항상 이미 포스트휴먼이었던 인류

“그리고 그때까지는, 나도, 내 이 종(種)도, 너희와 같은 생명으로서, 동등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한다. 그것이 모든 생명을 가진 자의 권리와 자격이므로.”(『종의 기원답』, 305쪽)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근대적 관념은 인간의 기본 단위를 ‘나에 대해 생각하는 나’라는 자의식의 단위 안에 한정시키는 관점을 낳았다. 이러한 협소한 인간관으로 인해 근대 이후의 인간은 ‘자의식의 범위’라는 뚜렷한 경계를 지니게 됨으로써 그 바깥에 있는 ‘비인간’-타자들로부터 고립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 인간은 비인간으로 간주되는 자연, 동물, 사물 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문명을 구축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명이 낳은 결과물이 오늘날 ‘인류세’라

고 불리는, 전지구적인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류세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미래를 향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스스로 협애한 테두리 안에 가둬둔 기존의 인간관을 해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테이시 얼라 이모가 주장한 '노출'의 정치학 혹은 윤리학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노출은 자아 중심적인 인간의 경계를 깨뜨리고 타자, 이방인, 비인간으로 간주되어온 외부로 향해 스스로를 개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역전시켜 표현한 김보영의 『종의 기원담』에서는 오이디푸스적 캐릭터인 주인공이 로봇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김초엽은 또다른 장편 『파견자들』에서는 범람체라는 낯선 외계의 존재에 노출된 인간들이 공존하는 방식을 익히고 다양한 존재들과 연결되는 포스트휴먼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개체라는 단위를 넘어서 타자와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연결되는 것만이 인류세적 위기를 타개하고 생존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김초엽의 단편 〈오래된 협약〉은 가상의 외계 행성 벨라타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공생의 원리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벨라타의 대기에 함유된 유독 물질 루티닐에 의해 고통 받는 거주민들의 모습은 인류세 동안 대기에 축적된 온갖 유해물질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벨라타 인들은 루티닐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벨라타의 원주민인 오브와 공생하기 위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조건으로 여긴다. 이 소설은 오늘날 우리가 파국, 재난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몸이 외부 물질에 의해 침해당하고 심지어 훼손되는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동안 배제하고 배척했던 비인간 생명체, 나아가 사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이미 우리의 일부분으로 체화된 근대적 세계관을 근본부터 성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에 내재된 모순이 인류세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지금, ‘인식론적 낯설게 하기’ 기법을 이를 통해 근대적 가치관을 비판으로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SF 문학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동시대 SF 문학은 자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선형적인 존엄성이란 관념을 의심하며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능력을 강조하는 신유물론적 사유를 선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김보영, 김초엽 등의 작가 외에도 듀나, 정세랑, 천선란 등 최근 한국문학장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펼치는 SF 작가들의 작품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를 비롯해서 최근 여러 창작자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SF 문학에 대한 열정적인 참여가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는 문명 전체에 새로운 전회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초엽, 『방금 떠나온 세계』, 한겨레 출판, 2021.

_____, 『파견자들』, 퍼밀리온, 2023.

김보영, 『종의 기원담』, 아작, 2023.

2. 논문과 단행본

김홍중,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패이션시(patience)〉,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2-50쪽.

김효영, 〈들뢰즈의 비인칭적 죽음에 대하여: 들뢰즈 자살에 대한 콜롬벳과 하루미의 논의를 바탕으로〉, 『철학연구』 제130호, 철학 연구회, 2020, 333-359쪽.

연남경, 〈사변적 페미니즘으로 본 SF 현상과 연결됨의 윤리—얼마나 닮았는가, 리셋, 오래된 협약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65-102쪽.

_____, 〈SF를 경유한 한국문학과 감수성의 변화 - 진정성의 주체에서 감각하는 존재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4, 11-46쪽.

윤영옥, 〈김초엽 SF에 나타난 물질로서의 몸과 생태적 상상력—〈늘지의 소년〉, 〈오염 구역〉, 〈오래된 협약〉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83집, 국어문학회, 2023, 371-399쪽.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로지 브라이도터, 『변신』,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_____,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20.

_____, 『포스트휴먼 지식』, 김재희·송은주 역, 아카넷, 2022.

박준영,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2023.

브뤼노 라투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김예령 역, 이음, 2021.

스테이시 얼라이모,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김종갑 외 역, 그린비, 2018.

_____, 『노출: 포스트휴먼 시대 환경 정치학과 쾌락』, 김명주 외 역,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아미타브 고시, 『대혼란의 시대』, 김홍옥 역, 에코리브르, 2021.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8.

클라이브 헤밀턴, 『인류세』, 정서진 역, 이상북스, 2018.

다이애나 쿨·사만다 프로스트 엮음, 『신유물론 패러다임』, 박준영·김종갑 역, 그린비, 2023.

Patrice Haynes, “Creative Becoming and the Patience of Matter”,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Vol.19, 2014, pp.129-150.

Soran Reader, “Agency, Patience, and Personhood”, in T. O’connor and C. Sandis eds.,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Action*, Blackwell Publishing, 2010, pp.200-208.

_____, “The Other Side of Agency”, *Philosophy*, Vol.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579-604.

Abstract

Exposed Bodies and Dissoving Egos: Post-human Subjectivity in Kim Bo-yong and Kim Cho-yeop's Sci-fi's

Yi Sohyon(Sogang University)

SF, which has expanded its scope since the 2000s, foretells a new civilization that humanity will create in response to the Anthropocene crisis. This study examines how science fiction in Korea is recreating the impending Anthropocene disaster, focusing on the novels of Kim Cho-yeop and Kim Bo-yong. These writers commonly suggest a solution that humanity must change itself above all in order for humanity to overcome the crisis and survive.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modern view of humanity and transform into a posthuman.

Kim Cho-yeop's *Dispatchers* depicts a world contaminated by 'bumramchae', creatures from outer space. People try to reject and avoid *bumramchae*, but the protagonist rather tries to find a way to coexist with *bumramchae*. Through this process, the writer presents a new human figure that goes beyond the modern view of humanity tha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ependent entity. These posthumans are shown connecting with a variety of other beings and joining the flow of creation. Kim Bo-yong shows how robots and humans choose to coexist and co-evolve despite the situation of damaging each other in *The Story of The Origin of Species*. Likewise, in the short story "Old Convention", Kim Cho-yeop asks to practice the ethics and politics of 'staying in extinction' and 'exposure' by escaping anthropocentrism through the process of seeking coexistence with extraterrestrial life.

Neo-materialist feminist researcher Stacey Alaimo encourages us to actively expose ourselves to harmful disasters that pollute our bodies and minds. Life

experiences the extinction and damage of the modern ego by exposing itself, but through this, it enters an ontological state of tangling connected to the wider world. This state involves the experience of breaking away from the atomized self and merging into the flow of generation, thus creating pleasure. Based on these reasons, this study proposes the politics of 'exposure' and symbiosis, which went further from 'patience' in the passive and ascetic sense, as an alternative to the Anthropocene.

(Keywords: post-human subjectivity, anthropocene, disaster, climate crisis, exposure, pleasure, trans-corporeality, dissolution, symbiosis, coevolution, posthuman, Sci-fi, trouble, anthropocene turn, new materialism)

논문투고일 : 2024년 4월 23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8일